한 주변부 사대부의 자의식과 자기규정

- 유만주(兪晩柱)의 『흠영』(欽英)을 중심으로 -

김 하 라 *

1. 서론
2. 공적 처지에서의 자기규정 :실직한 선비, 망상의 부유(腐儒)
3. 사적 영역에서의 자기규정: 두 분의 아버지와 불초자(不肖子)
4. 결론

초록: 이 글은 『흠영』에 나타난 유만주의 자의식과 자기규정의 양상을 사대부 신분이라는 공적 차원과 가계의 계승자인 적장자라는 사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먼저 공적 차원에서 유만주는 자신이 속한 신분인 사대부의 존재의의 내지는 계급적 특성을 사환(仕宦)이라는 직분과 지식인으로서의 가치에서 찾고 있다. 그는 여기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실직한 선비'와 '부유'(腐儒)로 범주화한다. 다음으로 사적 차원에서 유만주의 존재형태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이탈하여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했던 뿌리뽑힘의 경험, 그리고 계속해서 두 아버지 사이를 부유해야 하는 삶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규정된다. 또한 자신이 유전적으로는 죽은 아버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만주의 삶에 육박해 오며 결국 살아 있는 아버지를 닮지 못한 불초자로 자신을 규정하게 하는 기제로서 작동한다. 이처럼 공사영역에 걸친 그의 자기규정은 사대부의 직분, 지식인으로서의 존재의의, 가부장을 계승하는 적장자의 자격 등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 즉 결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되다. 이와 같이 결여에 주목하는 자기규정의 방식은 현실의 경험세계에서 유만주가 자기를 인식하는 태도의 근저를 이루며 그의 일기의 한 특질을 이루는 자조적(自嘲的) 측면과도 닿아 있다고 여겨진다.

핵심어: 유만주, 흠영, 사대부, 자의식, 자기규정

* 서울대학교 강사

1. 서론

18세기 조선의 한문일기 『흠영』(欽英)[1]은 당대의 문집이나 일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예외적이고 이질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일기 안에서 자신의 불우의식(不遇意識)을 투영한 허구의 창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의식의 흐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서술기법을 사용하여 직분 없이 부유(浮游)하는 존재로서 파편화되고 분열된 인간의 내면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개인의 사소한 일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을 폭넓게 재현하고 있는 이 일기가 궁극적으로 그려낸 자아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아 보인다.

『흠영』의 저자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역사가이자 독서인으로서의 지향과 연관된 이상적(理想的) 자아, 자신의 기호(嗜好)와 욕망을 반영한 상상적(想像的) 자아를 자신의 일기 안에서 동시에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아의 두 국면은 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두 자아는, 역사가·서적의 편찬자·몽상적 유토피아를 구상하는 작가라는 각각의 방향으로 저마다 나아갈 뿐이며, 어느 한 가지로 통합되려는 시도를 명백히 벗어나고 있다. 이를테면 역사가를 지향하는 그의 합리주의적 견해는 그가 만들어낸 상상세계에 함축된 견해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데, 이는 그 자체로 자아의 분열상을 보여준다.[2]

이 글에서는 그러한 분열상의 근저로 파고들어 이상적 자아와 상상적 자아의 대립과 모순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유만주가 평생 역사가를 희망하고 몽상적 유토피아를 만들며 이상적이고도 상상적인 자아를 구성해나간 것은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할 만한 여지를 발견하기 힘들었기 때문인데, 이런 점은 직분 없는 사대부로서만 존재했던 그의 일생을 통해

1) 『흠영』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로서 모두 24책의 필사본이다. 이 자료는 1997년에 6책의 영인본으로 출간되었다.

2) 이 점에 대해서는 김하라, 2011 「유만주의 『흠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18세기 조선의 서울이라는 구체적 시공 안에서 그를 규정할 만한 요소들, 즉 공적(公的)으로는 양반 사대부라는 신분, 사적(私的)으로는 부친을 계승하여 가부장이 될 장자라는 처지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신분제와 가부장제의 질서가 지배적이었던 18세기 조선 사회를 살았던 서울의 사인(士人) 유만주가 생래적으로 주어진 위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혹은 비껴나갔는지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그 스스로 시도한 현실적 자기규정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앞서 언급한 이상적이고도 상상적인 자아가 뿌리박고 있는 경험적 자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공적 처지에서의 자기규정 :실직한 선비, 망상의 부유(腐儒)

유만주는 자신이 쓴 일기 『흠영』과 그의 사후 『흠영』을 바탕으로 간행된 문집인 『통원유고』(通園遺藁)를 제외한 여타의 기록에서는 그 존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인물이다. 그의 일기에는 남공철(南公轍, 1760~1840), 권상신(權常愼, 1759~1824), 오희상(吳熙常, 1763~1833) 등 현전하는 문집을 남긴 유력한 노론계 문인들과의 지속적인 교유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의 문집을 보면 유만주를 대상으로 쓴 글은 거의 한 편도 없다. 남공철은 오희상의 형인 오윤상(吳允常, 1746~1783)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겸익(錢謙益)을 좋아한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취향의 소유자로 유만주를 한 번 언급했을 따름이고,[3] 권상신 역시 한때는 유만주와 친밀한 교유관계를 유지했음에도 1784년 윤3월에 함께 정릉(貞陵)으로 꽃놀이를 갔던 여러 벗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그를 기억하고 있으며,[4] 오희

3) 남공철, 『金陵集』 卷10, 「與吳士執 允常」. "通園 兪伯翠, 因僕聞遊事, 欲往從之. 伯翠博涉經史, 尤習於啓禎間遺事, 致之山色水聲之中, 聞其議論, 亦一趣事. 但其好虞山之文, 便成痼癖. 此則吾輩當忠告, 使之返醇, 可也."

4) 권상신, 『西漁遺稿』, 「貞陵遊錄」. 한편 유만주는 권상신의 「祭外祖母淑人趙氏文」, 「女琬壙誌銘」 등을 읽은 사실을 일기에 밝히고 있는데 이 글들은 모두 『서어유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은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유만주의 아들 유구환(兪久煥)에 대해서는 글을 남기고 있지만[5] 유만주에 관한 언급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교유인물인 이시원(李始源, 1753~1809)의 부친 이민보(李敏輔, 1720~1799)는 『통원유고』에 서문을 써 주었으나 이후 이것을 자신의 문집인 『풍서집』(豊墅集)에 싣지 않았다. 이는 당시 그를 알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유만주의 사회적 존재와 글쓰기가 공간(公刊)의 문집으로 표상되는 조선 사대부의 가치체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한다. 공적 견지에서 유만주는 위에서 언급한 교유인물들과는 달리 어떤 벼슬도 하지 못한 채 한갓 거자(擧子)로 일생을 마쳤고, 그가 평생 진력한 글쓰기는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낯설고 불온하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위에서 드러난 동시대인들의 태도로 미루어본다면, 유만주는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 문인으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하찮은 취급을 받았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것이다. 유만주는 생전에 이런 점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모욕감과 불안감을 일기에 토로한 일이 적지 않은데, 다음은 그와 같은 자의식이 어떤 식으로 촉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삽화 가운데 하나다.

> ○ 청(靑)이 들어와 유숙하다. 밤에 갑자기 비바람이 몹시 쳐서 밤새 시끄러웠다. 이런 말을 했다. "온갖 소리 가운데 밤비 소리가 가장 처량하다. 비록 극도로 번화한 사람이 극도로 번화한 작용(作用)을 펼쳐나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밤비 소리를 들으면) 역시 처량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하물며 궁색하고 비썩 마른 실직(失職)한 선비들이 무료히 이 밤비를 마주하고 있음에랴!" —1785.1.29[6]

이 인용문은 어떤 벗이 유만주를 방문하여 하룻밤 묵어 간 상황을 적은 것으로, 방문한 사람과 당시의 날씨, 그리고 방문객과 나눈 대화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

5) 오희상, 『老洲集』 卷14, 「祭兪姪久煥文」; 『老洲集』 卷20, 「兪童子久煥遺事」.

6) ○靑入留宿, 夜忽大風雨, 通宵騷喧. 議"萬籟中夜雨聲最凄絶, 雖極繁華人極張繁華作用, 亦無術而不凄絶也. 況窮枯失職之士, 無聊而對此與!"(1785.1.29) 원문의 "議"는 유만주가 일기에서 자신이 한 말을 직접인용할 때의 도입부로 종종 사용하는 어휘이다.

하나의 독립된 단락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방문객인 '청'(靑)은 당시 청교(靑郊: 청량리)에 거주했던 임로(任魯, 1755~1828)를 가리킨다. 그는 유만주와 동갑내기로서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가장 중요한 벗이다. 『통원유고』의 정리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바 임로는 『흠영』을 통독한 몇 안 되는 동시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만주에게 이런 벗과의 만남은 위에서 언급한 교유관계에서와는 자못 다른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로의 방문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의 처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임로의 부친 임종주(任宗周, 1734~1781)는 대사간(大司諫)으로 있던 중 정치적 이유로 유배형에 처해졌고[7] 결국 유배지인 함경도 단천부(端川府)에서 때 이른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당시 27세였던 임로는 부친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 서울에서 단천까지 1,200리를 왕복해야 했다. 이와 같은 고통스런 경험은 그로 하여금 당대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했고, 이후 그는 54세가 되는 1809년까지 벼슬을 단념하고 가난한 생활을 감내했다. 임로의 이러한 개인사는 스스로를 소외된 국외자로 간주하던 유만주에게 벗과의 동질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이들이 보여준 우정은 지기(知己)라는 말에 값하는 것이었다. 일례로 부친상을 당한 직후의 임로에게 유만주가 몹시 자주 문안편지를 보낸 사실을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비록 그 내용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그 행위의 동기가 임로의 불행을 함께 느끼고 그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위 일기가 씌어진 시점은 임로가 부친의 삼년상을 치른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때로서 그를 보는 유만주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연민과 공감의 태도가 기대된다.[8]

---

7) 『풍천임씨족보』에서는 이 사건을 홍국영(洪國榮, 1748~1781)의 세도에 몰린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실록에 따르자면 임종주는 은전군(恩全君) 이찬(李禶, 1759~1778)을 추대하고자 한다는 홍술해(洪述海) 등의 역모와 관련하여 유배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년 정유(1777) 8월11일 조에 홍술해 등의 역모와 관련하여 임종주의 정배형을 건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일성록』 정유 9월8일 조에는 의금부에서 임종주를 단천부로 정배하기로 확정한 일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유만주에게 '슬픔을 지닌 또 다른 나'로서의 의미를 지닌 벗인 임로가 등장한 후 이어지는 날씨는 이 단락의 주된 정조(情調)를 이루며 주제를 도출하는 중요한 배경의 구실을 한다. 임로가 방문하여 무료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밤중이라 더욱 잘 들리는 빗소리는 유독 처량하다. 유만주는 국외자로서의 처지를 공유하는 벗과 빗소리를 함께 듣게 된 상황이 이끌어낸 하나의 생각을 토로하는데, 이에 따르면 빗소리는 인간의 내면에 잠복한 비애를 언제든지 건드려 끄집어낸다는 점에서 가장 처량한 소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무리 번화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없다고 한 말은, 인간의 내면에 끼치는 빗소리의 영향력이 압도적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유독 번화하지 못한 자신과 임로의 처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수사로서, 마지막 문장에서 밤비를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을 더없이 처량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한다. 요컨대 이 단락은 하릴없이 빗소리를 듣고 앉아 있는 너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인사일 것이라는 자조적(自嘲的) 언급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유만주가 '번화한 사람들'로부터 자신과 임로를 구분하고 있는 표지는 궁색하고 비썩 마른 외양과 '실직'이라는 처지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지위를 소유하지 않아 잉여의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실직'은 이 두 친구가 닮은꼴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로서 이들의 외양이 남 보기에 초라한 것도 기실 이 때문이다. 이 단락은 유만주와 임로가 정서적 특징이나 사회적 처지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다는 정보를 준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단락에 부각된 이들의 공통점은 유만주 개인의 형상을 더욱 명확히 하는 효과를 내며 그를 실직한 선비라는 특정한 사회계층의 일원으로 범주화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위에 인용한 일기에 따르자면 유만주는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원인을 '실직한 선비'라는 자신의 잉여적 처지에서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적으로 뚜렷한 직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박약하다 여긴 것이다. 이 '실직한 선비'라는 말은 그의 자기규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변주되고 있는데, 이는

8) 기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1787년 3월 5일조에서도 부친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는 임로를 유만주가 위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가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속물적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에서는 실직한 선비라는 자의식이 그러한 속물적 시선에 대한 의식과 맞물려 있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 ○『한와유고』(閑窩遺稿)를 거듭 읽다(1책). "정수리까지 차오른 누런 티끌 속에 / 어떤 아이가 장부(丈夫)이리오? / 급제 못하면 고사(高士) 아니요 / 돈 없으면 바보인 것을." 모두 가난한 선비가 실직(失職)하여 불평하는 소리다. —1785. 10.21[9]

『한와유고』에 대해서는 1785년 1월 20일 조에 언급이 있는데, 그 몇 달 후 이 책을 다시 읽었다는 것으로 보아 유만주가 그 책의 내용에 대해 흥미와 공감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가 선택하여 베껴적은 시는 과거급제와 돈으로 표상되는 속물적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소외된 자가 느끼는 무력감을 직설적으로 내뱉고 있어 주목된다. '티끌'이 마뜩잖은 세속에 대한 상징물로 흔히 사용됨을 상기한다면, 자기 키를 덮을 것 같은 막대한 양의 누런 티끌은 자신을 에워싼 속물적 시선에 압도된 심적 상태의 은유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유만주는 이 시에서 제시하는 메시지에 공명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런 목소리가 어떤 계층에서 어떤 경로로 나오게 된 것인지 해석을 시도한다. 그의 짧은 평어는 '가난, 선비, 실직, 불평'이라는 단어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가난'과 '실직'이라는 말은 각각 원래의 시 가운데 '돈'과 '과거급제'라는 소재에 호응하며, 그런 것을 소유하지 못한 시적 화자의 하릴없는 목소리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보여준다. 한편 그는 '선비'라는 계층을 지목함으로써 이 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특정 계층의 문제라고 한정하고 있다. 물론 원래의 시에서 '고사'(高士)로 지칭되는 선비의 정신적 가치가 과거급제라는 외적 요소에 따라 간단히 무시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데서 그 시적 화자가 사대부로서의 자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9) ○重閱『閑窩遺稿』一冊. "沒頂黃埃裡, 誰兒是丈夫? 不第非高士, 無錢卽下愚." 皆貧士失職不平之鳴也.(1785.10.21)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돈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 상황은 굳이 사대부 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시의 주지는 돈이 가치기준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부(丈夫)[10]로서의 위신을 유지하기 힘든 돈 없는 남성 일반의 문제상황을 사대부계층에서 출발하여 포괄적으로 말하고자 한 데 가까울 것이다. 그럼에도 유만주는 선비라는 계층이 가난과 실직의 문제를 모두 수렴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일종의 계급적 모순이 '불평'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이 시를 해석한바, 그것은 실직한 선비로서 가난한 처지에 있으며 불평지심을 품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투영해 읽은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결국 유만주가 자신의 독서경험을 기록한 이 짧은 단락은, 그 선택한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져, 자신의 계급적 처지 및 그것이 자신에게 끼치는 정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하나의 간명한 자화상을 제시하는 면모가 있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유만주의 자기규정에서 '실직한 선비' 즉 잉여적 처지의 사대부 남성이라는 자신의 계급은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출발점으로 주목을 요한다. 전통사회의 사대부는 지식인이자 통치계급으로서 존재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사대부에게 기대되는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는 유만주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서와 글쓰기를 놓지 않으며 역사가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이상을 견지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고 그의 자아상 형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사적(私的) 인간으로만 존재하고 통치계급의 중심부에 진입하지 못한 유만주에게 사대부 남성이라는 계급적 지위는 질곡으로 작용한 면이 더 크다 하겠다. 직분을 위주로 사대부 남성 개인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풍토에서, 직분을 얻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과거시험은 가장 유력한 평가기준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은 그와 같은 사회적 통념에 대한 유만주의 태도 및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

10) 장부(丈夫): 이 말은 '다 자란 건장한 남자'를 뜻하는바, 남성이라는 성별과 관련된 것이지 특정 계층에 한정된 말은 아니다.

> ○ 밤에 이런 말을 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과목(科目: 과거 시험)을 대단한 일로 보아 합격하면 능사를 다 마친 것이라 여기며 그 사람을 남보다 월등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합격하지 못하면 세상에 쓸모가 없다 여기며 바보 멍청이에 파락호 같은 무리로 간주한다. 마치 과목 이외에는 천하와 고금에 다시 중대한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몹시 가소롭다. 천하에 사람이 되는 이치가 어찌 진정 이와 같을 뿐이랴.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 다른 재능이 없는 데다 정식(程式: 과거시험용 문장)에 있어서도 역시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저 큰소리 칠 수만도 없을 것이다."—1784.9.23[11]

이 글에서 유만주는 과거 급제 여부를 인간성의 훌륭함과 그렇지 못함까지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회의 통념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고, 그런 통념의 지배를 받는 이들을 우선 비웃고자 한다. 그러나 실패자인 유만주를 쓸모없는 바보 멍청이에 파락호로 여기고 있을 그 통념적 시선은 이미 그에게 깊이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아상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그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신이 과거제와 그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성토하는 행위 자체를 다시 돌아보며 그것이 되레 헛되이 큰소리나 치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로 이 단락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제의 폐단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공격이 한갓 자기변명의 수단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한편 사대부 남성의 직분을 사환(仕宦)과 연결짓는 사회적 통념은 유만주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빈곤을 타개할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장애로 작용하기도 했다. 유만주는 이것을 조선의 특수한 상황으로 여기고 있다. 그에 따르자면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사대부가, 농・공・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오직 과환(科宦: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아치가 됨)만이 생계 유지의 길이 되어 있어, 만약 양반으로서 과환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는 생계를 이어나갈 최소한의 여지가 없이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일이든 선택하여 생산에 종사하고 먹고 살 길을

11) ○夜議, "世人皆以科目爲大事, 得之則以爲能事畢, 以爲賢智拔萃之人, 而不得則以爲無用於世, 以爲愚獸破落之徒, 有若科目以外, 天下古今更無重大物事者. 然是誠大可笑也, 天下成人之理, 豈眞如此而已? 然若其無他才能, 而至于程式, 亦不解者, 則不可徒作大言."(1784.9.23)

찾을 수 있는 여타의 낮은 신분계층의 구성원들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12] 이에 유만주는 조선의 양반에게 가난이란 사형선고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다.[13]

이처럼 그는 과거제의 벽에 막혀 사회적인 인정과 생계의 수단을 얻지 못한 자신과 같은 사대부의 부류를 일컫기 위해 실직과 가난이라는 두 요소를 부각시켰는데, 이 두 요소는 다시 '부유'(腐儒)라는 인간형으로 이어진다.

> ○ 대성전(大成殿)과 비천당(丕闡堂)은 재능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망상에나 빠진 부유(腐儒)가 희구할 만한 것이 아니다. —1784.9.24[14]

대성전과 비천당은 모두 성균관에 속한 건물들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유만주가 평생을 오갔던 곳이며, 이곳을 희구할 수 없다는 말은 자신에게 급제의 희망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거자(擧子)로서의 열패감을 표한 이 글에서 유만주는 스스로를 '재능도 지혜도 없으며 망상에 빠진 부유'로 정의하는데, 먼저 재능과 지혜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못 된다는 평가이고,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역사가로서의 이상이라든가 문인으로서 불후를 이루고자 하는 포부가 허황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회의를 드러내는 말이다.[15] 실패한 거자로서의 처지가 그의 자기규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가 자신의 이러한 내적·외적 상태를 집약하고 있는 '부유'(腐儒)라는 말은 원래는 '진부하여 쓸모없는 선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쓸모없는 선

---

12) 김하라, 앞의 논문, 59~76면.

13) ○或言, 東國兩班, 貧爲上刑, 於是擬製『上刑訂』.(1785.12.2)

14) ○大成,丕闡, 非無才無智妄想腐儒所可希擬.(1784.9.24)

15) 다음은 그가 문인으로서 지닌 자신의 이상을 망상으로 간주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止妄想及於梓潼 文昌而已與! 牧齋 宗伯共事之迂, 同一可笑."(그저 망상으로는 재동신 문창신에 이를 따름이다. 전목재 종백과 함께 일한다는 오활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가소롭다)(1784. 7.9) 재동신과 문창신은 공히 천하의 문장과 서적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고 목재 전종백(=전겸익)은 유만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비'라는 개념은 앞서 여러 차례 나온 '실직한 선비'라는 유만주의 자기규정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 '쓸모없음'의 이유가 되는 '진부함'은 직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식계급으로서의 유자=사대부가 세계에 대해 지닌 태도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식인에 속하는 어떤 사람이 진부하다면 이는 그가 견지하고 표명하는 가치체계가 시대착오적이고 고루함을 뜻할 것이며, 그렇게 된 까닭은 그가 지식인으로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그가 쓸모없게 된 이유이다.

'직분 없는 선비'로서 이미 자신에게 사회적 용도가 없다는 자의식을 지니고 있던 유만주가, 그 직분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쓸모없는 선비인 '부유'를 자기규정의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실상 그는 지금의 학계에서는 대단한 독서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가 읽은 막대한 책들은 대체로 당시 조선에서는 최신의 지식을 수렴한 것이었기에, 세상물정에 어두우며 고루한 촌학구(村學究) 정도를 연상시키는 '부유'의 형상은 그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부유'로 지목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자신이 결국 '부유'로 마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버리지 못하였다.

> ○ '恒兀兀而窮年'[언제나 오똑하니 앉아 한 해를 다 보낸다]이라는 이 여섯 글자는 학구(學究)의 진부한 행태를 잘 형용했다. 그리고 곧 '死'라는 한 글자가 선채로 기다리고 있다가 닥쳐오매 눈돌릴 새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관뚜껑이 덮이고 땅에 묻히면 결국에는 일개 부유의 무덤이 되고 마는 것이다. —1785.11.27[16]

인용문의 여섯 글자는 원래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 나오는 문구로 밤낮없이 독서와 저술에 매진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형용한 말인데, 유만주는 이것을 학구의 진부한 행태를 표현한 말로 부정적으로 비틀어 쓰고 있다. 홀로 독서와 저술에 매진하는 자신의 삶 역시 이 여섯 글자로 표현될 만하다고 여기면서도, 그런 자신의 삶에 선뜻 의미부여를 하지 못하는 그의 모순된 내면이 이 뒤틀린 인

16) ○'恒兀兀而窮年', 此六字善形容得學究腐態, 乃一死字到頭立候, 不容轉眼. 於是乎, 蓋棺而埋之土中, 則至竟是一箇腐儒塚而已.(1785.11.27)

용에서 엿보인다. 여기서 그가 독서와 저술에 매진하는 지식인의 형상을 부유와 연관짓는 근거는, 그 매진의 행위가 지닌 자폐적 특성에 있다. 즉 누군가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쓴다 한들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면 지식인으로서 그는 제한된 몇 권의 책만 읽고 그것을 세계의 전부로 착각하는 촌학구와 다를 바가 없다. 살아 있는 동안 남과 소통하지 못하면 고루함을 탈피할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읽어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업적은 사회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독서와 저술에 매진하는 지식인을 부유와 연관짓는 그의 사고방식은 문인으로서 자신의 삶이 지닌 자폐성의 위험을 성찰한 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결국 유만주가 자신의 생애에 대해 '부유의 무덤'이라는 충격적인 결말을 제시한 것은 독서와 저술에 매진하는 자신의 삶이 어떤 사회적 의미도 가질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이다. 자신이 언제고 죽을 운명의 존재라는 자각에서 오는 공포의 감정은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부유는 사대부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생애 및 그에 대한 가치부여와 관련된 미래형의 자기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직한 선비가 사대부로서 과환에 진출하지 못한 현실적 처지를 반영한 자기규정이라면, 부유라는 자기규정은 그런 처지에서 이름없는 지식인으로서 살아 온 자신의 삶이 결국 의미없는 것으로 끝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3. 사적 영역에서의 자기규정: 두 분의 아버지와 불초자(不肖子)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가정 내에서 유만주의 지위는 부모의 아들이자 아내의 남편, 자녀들의 아버지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점은 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부모와 아내가 한 사람이 아

니라 둘씩 있었다는 점이다.

족보상으로 유만주의 부친은 실제 그의 백부인 유한병(兪漢邴, 1722~1748)이고, 모친은 백모인 청주 한씨(淸州韓氏)이다. 한편 유만주의 생부는 고문가(古文家)로 잘 알려진 노론계의 관료 유한준이고, 그의 아내인 순흥 안씨(順興安氏)가 당연히 유만주의 생모가 된다. 27세에 후사 없이 사망한 형을 위해 유한준이 자신의 외아들을 양자로 보낸 것이다. 또한 유만주는 14세이던 1768년에 3세 연상의 해주 오씨(海州吳氏)와 혼인을 했으나 1773년 해주 오씨가 아들 구환(久煥)을 낳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산후병으로 사망하자 이듬해에 반남 박씨(潘南朴氏)를 재취로 맞아 14년을 함께 살았다. 이렇게 그에게는 부모와 아내가 각각 한 쌍씩 있었다.

물론 양자를 세워 가계를 잇게 하는 일이 낯설지 않고, 평균수명이 현재보다 낮아 배우자와 사별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던 18세기 후반 조선 사회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는 특별한 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유만주가 이와 같은 두 겹의 가족관계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것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는 데 있다.

이 가운데 아버지가 둘이라는 점은 가부장의 계승자라는 가계내적 지위를 지닌 유만주의 자기의식 내지는 정체성 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보인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동일시의 대상이자 성인으로의 성장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의 외모 뿐 아니라 성향, 세계관 및 삶의 행로 등을 닮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물며 18세기 후반의 조선 사회에서 적장자란 부친의 계승자로서의 의미가 지금보다 더욱 확고하였을 터이다. 그럼에도 유한준의 외아들인 유만주가 부친과 자못 다른 세계관과 삶의 행로를 보여 준 것은 분석을 요하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유한준은 고위직은 아니었으나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관력(官歷)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유지하였고, 기계 유씨 가문 내에서나 주로 노론계 문인·관료들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도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삶을 80세에 이르도록 이어나갔다. 이에 반해 유만주는 34세에 이르는 생애 동안 주로 병에 시달리며 한 번도 공적 직분을 가진 적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무시된 존재에 가

까웠으므로 부친과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인으로서 유만주는 부친의 영향을 받은 면모도 적지 않지만 결국 그가 지향한 바는 '남들은 고문(古文)을 하지만 나는 금문(今文)을 하며, 남들은 남들의 글을 하지만 나는 나의 글을 한다'[17]는 그의 선언에 잘 나타나 있듯 고문가로 알려진 부친의 문학론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오로지 글쓰기에 치력한 아들의 고독한 삶을 포용하여 그의 저술활동을 가능케 하고 아들보다 오래 살아남아 그 흔적이 인멸되지 않도록 수습한 유한준이 보통을 훨씬 넘는 훌륭한 아버지였고, 생전의 유만주가 부친을 존경하고 그로부터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차이가 적어도 '아버지를 부정하며 성장하는 아들'이라는 구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만주에게 아버지에 더하여 또 다른 동일시의 대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대상을 유만주의 양부이자 백부인 유한병으로 보고자 한다.

유한병에 대한 상세한 기록으로는 그의 조부인 유광기(兪廣基, 1674~1757)가 쓴 「제문」(祭文)과 「행록」(行錄)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유한병은 두 살때 천연두를 앓아 거의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으며 이 때문에 눈병이 생겨 침술 치료를 받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열 살이 될 때까지 위험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 그 이후로는 점차 회복되어 관례와 혼례를 치렀고 정시(庭試)에 합격하여 주변의 기대를 모았으나 미처 벼슬을 하지는 못했다. 또한 그는 서사(書史)에 탐닉하였는데, 그 가운데 『좌씨전』(左氏傳)을 초록하는 데 가장 힘을 기울였고, 문예에도 재능을 보여 평소에 지은 사부(詞賦) 가운데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구절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1747년 부친 유언일(兪彦鎰, 1677~1747)이 갑자기 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유한병은 시병(侍病)에 온 힘을 쏟았고, 그런 보람도 없이 부친이 사망하자 슬픔이 지나쳐 몸이 상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이듬해인 1748년에 27세로 세상을 떠났다.[18] 이후 조정에서는 그의 효성을 높이 평가하여 정려(旌閭)를 내렸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정려를 청하며 예조(禮曹)에 올린 정문(呈文) 및

17) ○人則古文, 我則今文; 人則人文, 我則我文.(1784.2.10)

18) 유치웅 편, 1963『기계문헌』, 부운장학회. 656-659면.

김이곤(金履坤, 1712~1774)이 쓴 「효자유한병전」(孝子兪漢邴傳) 등이 참조된다.[19]

위에서 언급한 유한병의 생애는 그 양자인 유만주의 생애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크게 보아 직분 없는 사대부로 짧은 생애를 마쳤다는 점이 같으며 그 생애 동안 사학(史學)에 대한 관심과 문예적 재능을 보였다는 점도 공통된다. 또한 이 두 사람이 이른 죽음을 맞은 이유가 되는 병약한 체질과 다감한 기질 또한 이들이 공유한 점이다. 유만주 역시 자신의 양부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에 시달렸고 이는 그의 삶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와 같은 그의 고질병 중에는 눈병도 있었다. 게다가 병약한 유만주의 삶에 타격을 입혀 결국 그를 죽게 한 계기 역시 양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혈육의 죽음이었다. 유만주는 아들 구환이 15세로 요절한 이듬해인 1788년에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유한준은 "만주는 슬픔과 상심이 지나쳐 아들이 죽은 지 아홉 달 만에 죽었다. 죽을 때 그저 아내와 딸들을 평온히 어루만져 주고 자리를 바로 하고 임종했다"[20]고 술회한 바 있다.

한편 유한병과 유만주가 속한 가계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명목상의 부자가 보여주는 삶의 유형만은 아니다. 유한병과 유만주는 모두 직계의 혈육이 병사한 지 1년 사이에 따라가듯 사망했고, 이러한 죽음의 너머에는 아들과 손자보다 오래 살아남아 거듭 참척(慘慽)의 기록을 해야 했던 조부와 부친의 존재가 있다. 즉 유광기가 그 아들 유언일과 손자 유한병의 죽음을 차례로 곡해야 했던 것처럼, 유광기의 손자 유한준은 다시 그 손자 유구환과 아들 유만주의 죽음을 글로 기록해야 했다. 1년 사이에 아들과 손자를 모두 잃은 노인의 비통한 독백이 꼭 40년의 시차를 두고 거듭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가계에서 삼대(三代)를 단위로 반복되는 모종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이 명목상의 부자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반복되는 가계의 운명이나 혹은 유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만주와 유한병의 삶이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

---

19) 유치웅 편, 위의 책, 659-661면.

20) "晩柱過悲傷, 去其子死九月而又死. 死時顧怡然麾婦女, 正席而終"(유한준, 『自著著草』, 「從子晩柱墓誌銘」).

치라기보다는 유전적 요인의 탓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전적 요소를 유만주가 자각하고 있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유만주가 아버지의 계승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 해당하는 1770년대 후반까지의 『흠영』에는 마치 아버지를 대신해 일기를 적는 것처럼 생부 유한준이 관료로서 행하는 소소한 공적 행위를 하나하나 기재한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이를테면 군위(軍威) 현감으로 재직중인 부친이 번고(反庫: 창고 조사)나 진휼 등의 행사를 주관한 것, 인근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 등을 그때마다 적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만주가 같은 시기의 일기에서 당시의 지방행정에 대한 견해를 종종 밝히고 있는 것과 연관하여 본다면 예비 관료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적(私的) 차원에서 관료인 부친의 행적을 적는 것은, 아직 책방(冊房) 도령으로서 직분 없는 독서인에 불과한 자신을 부친의 계승자로 여기고 그와 유사한 관료의 삶을 살 것으로 기대하며 부친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태도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유만주가 20대를 보내는 동안 양부 유한병은 아버지로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유만주는 양부가 사망한 지 7년 후에 태어났으므로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흠영』 안에서 유한병은 선공(先公: 돌아가신 아버지)으로 지칭되며, 그의 존재는 주로 기일인 10월 4일에 제사를 지낼 때와, 그가 죽은 후 조정에서 내려 준 정려(旌閭)의 표지를 집안의 적절한 장소로 옮기거나 수리하는 등의 관리를 행할 때 주로 환기될 따름이다. 유만주는 이미 사망한 유한병을 기념하기 위한 관례를 주관한다는 점에서만 그의 아들노릇을 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생부 유한준의 아들로 살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터이다.

그러나 유만주는 서른이 훨씬 넘도록 생부 유한준과 같은 관료의 삶을 살지 못했으며 이런 면에서 외려 양부 유한병의 전철을 밟는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 이에 유만주의 생애 말년에 이르러 유한병의 존재는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환기되고 있다. 다음은 유만주에게 동일시의 대상인 아버지 유한병의 존재가 부각되는 맥락의 일단을 보여주는 한 예다.

18일 계해. 아침에 춥다. ○가대인(家大人: 아버지)께서 또 한정(寒井)에 가시고 자위(慈闈: 어머니)께서도 이어서 나가시다. (…) ○저녁에 자위께서 돌아오시다. 기청(祈請: 기원)의 전향(轉向)을 현달로 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되레 큰 웃음이 난다. 대저 현달이란 영의정이나 이조판서, 관찰사, 대제학 같은 것을 말한다. 구구한 벼슬자리가 고화(高華)하고 청준(淸峻)하며 부귀하다 할 수 있겠는가. (…) ○밤에 성품이 선공(先公)을 닮았다는 말을 듣다. 그렇다면 불초자(不肖子)가 어찌 감히 하랴. 돌아보건대 스스로 언제나 환히 알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만 인순하며 고치지를 못하니 도탄할 만한 일일 따름이다. —1786.1.18[21]

이 하루치의 일기에서 주목을 끄는 곳은, 가족 중 누군가가 유만주더러 그 선공(先公) 즉 돌아가신 양부 유한병을 닮았다는 말을 했다는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만주가 유한병을 닮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유만주가 스스로를 '불초'(不肖) 즉 '닮지 않은 자'로 규정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는 어버이의 덕망이나 유업(遺業)을 이을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 없는 '불초'로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타고난 기질 등을 인순(因循)할 뿐 고치지 못하고 있어 도탄할 만하다고 부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단은, 양부 유한병을 닮았다는 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수긍하는 한편으로, 자신이 생부 유한준을 닮지 못한 이유를 타고난 기질과 같은 일종의 생래적 요소를 극복하지 못한 데서 찾고 있는 유만주의 자기인식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와 같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 점에서 자신이 생부가 아닌 양부를 닮고 있다 여기는 유만주의 자기인식은 해당 대목 이전에 기술된 내용과 더불어 구체적 맥락을 형성한다. 먼저 이 하루치 일기는 가대인 즉 생부 유한준이 한정(寒井)에 또 갔다는 언급으로 시작된다. 한정이란 지금의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으로 유만주의 족숙(族叔) 유한응(兪漢膺)이 살던 곳을 지칭하며, 냉동(冷洞)이라 일컬은 예도 보인다. 유한준은 외아들 만주를 백씨의 양자로 출계한바 명목상으로 아들이 없는 처지였고, 이에 유한응의 다섯 아들 중 막내인 명주

21) 十八日 癸亥. 朝寒.○家大人又有寒井行, 慈闈繼出. (…) ○夕慈闈還臨, 承聞轉向祈請, 認爲顯達, 却可嗢噱. 夫顯達云者, 揆冢藩衡之謂也, 區區綬紱, 可謂高華淸峻而富貴與! (…)○夜見稱性類先公斷, 則不肖岦敢? 顧自知未嘗不明, 特因循未克遷改, 爲可悼歎爾.(1786. 1.18)

(明柱)를 자신의 계승자로 입적하고자 하였다. 유한응은 이미 둘째 익주(益柱)와 셋째 노주(老柱)를 양자로 보낸 터라 난색을 표했으나 유한준은 거듭 유한응을 방문하여 설득하는 데 지치지 않았고,[22] 그런 그가 '한정에 또 갔다'는 것은 그런 시도의 일환이었다. 모친도 이어서 나갔다는 것은 그 시도에 힘을 보태려는 행위가 아닌가 한다. 기실 몇 차례나 거듭된 유한준의 '한정행'(寒井行)은 이 무렵 결실을 보아 꼭 한 달 뒤인 1786년 2월 18일에는 유한준의 의도대로 환주(晥柱)로 개명한 명주(明柱)[23]를 냉천동에서 데려와서 양자를 입적한 일을 가묘(家廟)에 아뢰고 있음이 확인된다.[24]

부친과 모친의 외출을 언급한 다음으로, 외출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전혀 현달하지 못한 아들에게 현달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 언급에 대해 우스운 것으로 치부하며 영의정이나 관찰사 정도나 되어야 현달이라고 허황되게 말하는 유만주의 태도는 현달하지 못한 자의 자격지심과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생부인 유한준이 외아들 유만주가 아닌 별도의 계승자를 정하고자 외출한 것으로 시작된 이 날의 일기는 현달하지 못한 아들의 자격지심을 드러내는 삽화가 덧붙여지며 이후 '불초'로 귀결되는 유만주의 형상에 구체성을 부여한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이 양부 유한병의 성품을 닮았다는 주변의 지적과 이에 대한 유만주의 수긍은 자신의 현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며, 한편으로는 유한준의 계승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 또한, '성격이 곧 운명'이라는 비근한 말도 있거니와, 체질과 성품이 결합된 필연적 귀결로서 일찍 죽은 양부의 생애는 유만주가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 가대인께서 교정소(校正所)에 나가시다. (…) ○밤에 (아버지를) 모시고 『송자대전』(宋子大全)이 모두 99권이나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 돌아와 집안 선대(先代)의

---

22) 유한준, 『自著續集』 冊4, 「族兄縣監公墓誌銘」.

23) ○家大人于冷洞更定季名, 易明以晥, 晥, 明也白也.(1786.2.13)

24) ○朝晏帶衛西出冷, 率晥歷鍮而入拜廟, 家大人口告立後之由.(1786.2.18)

낡은 종이뭉치들을 정리하다 선공(先公)의 무진년 가을 일기를 읽다. 8월 보름에 시작되어 9월 26일까지 모두 40일 동안의 기록이다. 중추절 오후에 채비를 하여 길을 떠나 21일 포시(晡時: 오후 4시) 지나서 영춘(永春)에 도착했으며, 영춘에 도착한 후 30여 일 동안 결국 의원 임씨(任氏)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1786.11.12[25]

먼저 이 일기는 유만주에게 두 아버지가 공존하는 양상을 공교롭게 보여주고 있다. 유만주는 생부인 유한준으로부터 『송자대전』의 편간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는다. 유한준은 당시 『송자대전』의 편찬과 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정소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던 중이었다. 『흠영』에 나타난 바에 따르자면 유한준은 송시열의 학문과 문장을 추숭하는 면모가 뚜렷하였으며 이런 견해를 아들에게 자주 드러냈다.[26] 유만주는 이와 같은 부친의 견해를 수용하여 송시열의 문장을 존중하고[27] 자신의 편찬계획에서도 송시열의 문집이나 어록을 포함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28] 그러나 실제로 그가 송시열의 글을 대단히 선호하며 읽은 것 같지는 않으며, 불경과 소설, 자국사, 잡다한 소재의 유서(類書) 등등 취향과 관심사, 기호(嗜好)를 망라한 그의 편찬계획에서 송시열의 존재는 기묘한 부조화를 자아낸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는 송시열에 대해 동의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 것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노론의 자제로서 기본적인 당파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을 노론과 동일시하지 않고 시종일관 당파를 초월하거나 노론에 대해 거

25) ○家大人進校正所. (…) ○夜侍聞『宋子大全』共數當爲九十九. 還檢家先故紙整理之, 閱先戊辰秋日記. 始八月望日止九月廿六日, 凡四十日, 中秋午後治發程, 至廿一日晡後抵永, 抵永後三十餘日之間, 終不得見醫任矣.(1786.11.12) 여기서 "侍"라는 동사는 '부친을 모시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26) 일례로 1775년 3월 5일조에는 부친이 가르치시길 화양(華陽: 송시열)의 문장은 경계와 폭이 매우 광대하며 그 기세는 왕세정과 흡사하다고 하셨다는 언급이 보인다.

27) 다음이 그 한 예다: ○『宋子大全』一書, 春秋之質的也, 義理之府庫也, 議論之權衡也, 典故之淵藪也, 文章之綱維也, 金石之都會也. 非直有辭於東國, 亦將有辭於中國; 非直有辭於今世, 亦將有辭於來世, 家不可以不置, 士不可以不讀也.(1778.9.27)

28) 1778년 6월 7일조에는 "○擬編『華陽語類』"라 하여 송시열의 어록을 편찬할 계획을 하고 있고, 1779년 8월 28일조에서는 『鴻都新書』라는 대규모 총서를 기획하며 여기에 송시열의 문집을 포함시키고 있다.

리를 두어 비판하고 냉소하는 유만주의 정치적 입장과도 어느정도 관련을 갖는다.

요컨대 유만주가 본성과 기질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게 송시열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데서, 부친 유한준의 영향력이 발현되는 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방에서 송시열과 관련된 말씀을 들은 후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유만주가 펼쳐들고 있는 것은 바로 선공(先公) 즉 죽은 양부 유한병의 일기다. 이 두 장면의 연쇄는 두 아버지가 각각 목소리와 글로써 한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상을 또렷이 부각한다. 살아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노론계 문인으로서의 당파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죽은 아버지가 남긴 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가.

위의 일기에서 언급된 유한병의 일기는 1748년 가을의 것으로 그가 죽기 직전의 기록에 해당한다. 그가 사망한 날짜가 1748년 10월 4일이므로 마지막 일기를 썼다고 한 9월 26일로부터 일주일 남짓 지났을 따름인 것이다. 인용한 이 일기는 유한병이 의원을 만나기 위해 추석날 오후에 길을 떠나 엿새 만에 영춘에 도착했으나 그 후 30여일 동안 의원 임씨를 만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으나 목적대로 의원을 만나지 못해 되레 죽음을 재촉하는 여행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일기는 죽음의 노정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29] 따라서 유만주가 이 일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읽어낸 것은 죽음의 징후였을 터이다. 자신과 닮았다고 언급되는 죽은 양부의 마지막 일기는 그의 불운과 이른 죽음을 강력하게 환기하는 것이었고,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염세적 태도를 종종 보이고 심지어 죽음을 희구하기조차 했던 유만주가 이 일기를 감정이입하여 읽으며 은연중에 자신을 양부와 동일시했다고 보아도 지나친 견해는 아닐 것이다.

사실 앞서 언급한 유전적인 조건 외에도 유만주의 삶과 가족 내에서의 처지는

29) 다시 유한병의 조부 유광기의 기록을 참조하면 유한병이 영춘에 간 것은 그곳에 조부가 지방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바 그에게 의지하여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이유는 영춘의 인근 지역인 풍기의 명의 임태후(任泰垕)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무리한 여행 탓으로 도착하자마자 병은 더욱 위중해지고 결국 의원도 만나지 못해 객지에서 숨을 거두게 된 것이다.(유치웅 편, 앞의 책, 658-659면 참조)

그가 자신을 죽은 양부와 동일시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만주는 자신의 삶이 진행될수록 양부와 자신이 닮았음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고, 이 자각은 결국 양부의 마지막 일기를 읽는 장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암울한 전망으로 귀결하게 된다.

한편 유만주의 가족내적 처지도 자신과 양부의 동일시를 강화하는 조건이 되었다. 그는 유한병의 아내이자 자신의 양모인 청주 한씨를 평생 실질적인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 『흠영』에서 주로 대위(大闈: 큰어머니)로 일컬어지는 이 여성은 유만주의 생모인 순흥 안씨보다 오히려 더 자주 언급되는 편이다. 생신상을 차려 드리고, 평소에 반찬을 사다 드리고, 병환 때 약을 지어 드리고, 윤달에 수의를 마련해 드리는 등 유만주가 양모를 위해 하고 있는 봉양의 행위는 실생활의 다양한 국면에 걸쳐 있어 이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 일상 속에서 유만주는 자신이 죽은 양부의 계승자임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유만주의 맏아들 구환(久煥)은 태어나자마자 생모를 잃었는데, 이 아이에게 어머니 노릇을 한 이 역시 계모 반남 박씨가 아니라 큰할머니인 청주 한씨였다. 유만주의 양모 청주 한씨는 구환의 실질적인 양육을 도맡아 하였고, 이런 사정은 구환이 열다섯에 병사한 후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 청주 한씨의 거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유만주가 구환의 성장기와 관련한 일화를 대개 청주 한씨로부터 듣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유만주에게 어머니로 모실 대상으로 정해졌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도 어머니가 되어 준 이 여성이 그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터이다.

그런데 그 청주 한씨가 유만주의 동일시 대상인 유한병의 아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우선 청주 한씨의 존재는 죽은 양부의 계승자라는 유만주의 정체성을 꾸준히 자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성은 구환에게 어머니 구실을 했다는 점에서 유만주와 불화했던 그의 아내 반남 박씨의 역할까지도 일정 부분 담당한 셈이 되는데, 이와 같은 청주 한씨의 가족내적 처지는 유만주에게는 역시 자신을 청주 한씨의 남편 즉 죽은 양부와 동일시하는 구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애초에 관료 문인인 유한준의 삶을 준거로 삼아 그를 닮은 아들로 살아가던 유만주는 예비 관료라 하기에 적합한 자기인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닮은 삶은 좀처럼 실현되지 않았고, 30세를 넘어서며 유만주의 삶은 기존의 궤도를 조금씩 이탈하며 이른바 불초자(不肖子)의 길을 가게 된다. 그가 자신의 불초함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의 기제는 바로 자신이 죽은 양부를 닮았다는 사실이었다. 유만주가 지닌 양부의 유전인자는 그의 삶이 진행될수록 자각적으로 인식되고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 과정에서 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유만주가 사대부 신분이라는 공적 차원과 가계의 계승자인 적장자라는 사적 차원에서 시도한 자기규정의 양상을 각각 검토해 보았다. 먼저 공적 차원에서 유만주는 자신이 속한 신분인 사대부의 존재의의 내지는 계급적 특성을 사환(仕宦)이라는 직분과 지식인으로서의 가치에서 찾고 있다. 그는 여기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실직한 선비'와 '부유'(腐儒)로 범주화하는데, 이는 자신에게 사대부로서의 존재의의가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다음으로 사적 차원에서 유만주의 존재형태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이탈하여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했던 뿌리뽑힘의 경험, 그리고 계속해서 두 아버지 사이를 부유해야 하는 삶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규정된다. 또한 자신이 유전적으로는 죽은 아버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만주의 삶에 육박해 오며 결국 살아 있는 아버지를 닮지 못한 불초자로 자신을 규정하게 하는 기제로서 작동한다.

이처럼 공사영역에 걸친 그의 자기규정은 사대부의 직분, 지식인으로서의 존재의의, 가부장을 계승하는 적장자의 자격 등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 즉 결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되다. 이와 같이 결여에 주

목하는 자기규정의 방식은 유만주 특유의 자조적 태도 및 노악취미(露惡趣味)에 가까운 자기비하와도 닿아 있으며 현실의 경험세계에서 그가 그가 자기를 인식하는 태도의 근저를 이룬다. 경험세계에서 그가 시도한 자기인식은 스스로를 '무'(無)에 가까운 하잘것없는 존재로 그려내는 것이었고, 이는 다음과 같은 자기비하적 명명법(命名法)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 ○ 일찍이 두 가지 한스런 일이 있었다. 어떤 자가 종을 보내어 나를 초대하면서 곧바로 이름을 부르도록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저 농담이라 여기고 따지지 않았었다. 낙동(駱洞)에서 세배를 할 적에 완자(宛子)를 대접받았는데 먹는 법을 몰라 어물어물하느라 양껏 먹지도 못하고 돌아왔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의 일은 이치상 그 함부로 한 행동을 꾸짖고 엄히 다스려 부끄러운 줄 알도록 해야 했고, 나중 일은 이치상 그 먹는 법을 물어보고 구차히 허겁지겁 먹지 말았어야 했다. '열 가지가 없는 허랑한 자'라 하는 것도 마땅하다. —1786.9.25[30]

이 일기는 유만주의 사회적 위상과 성격을 극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자나 호가 아닌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같은 신분 안에서도 몹시 무례한 행위에 해당하는데 하물며 종이 개입하여 '만주'라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을 때 당사자가 느꼈을 모멸감은 상상이 간다. 한편 낙동은 유만주의 종백(從伯)인 유준주(兪駿柱)의 거처였다. 유준주는 이 집안의 장손으로 일찍 출사하여 지속적으로 관력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며 그의 집은 유만주 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편이었다. 그런 친척집을 방문하여 낯선 음식을 대접받고 낭패하여 제대로 못 먹다가 나중에야 후회하는 유만주의 형상은 우습고도 처량하다.

유만주가 묘사하고 있는 자신의 형상은 자신의 교유관계와 가문 내에서의 처지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어 우선 눈길을 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멸감이나 낭패감을 오래 마음에 담아 두었다 일기를 쓰고 있는 유만주의 소심함이 읽는 이를 일순 당황하게 한다.

---

30) ○曾有二恨事, 有遣奚斥名而召者, 止處之以諧弄而無辨. 拜年于駱, 見餉宛子, 不解食法, 含糊不盡飽而還. 今思之, 前者理宜明數其亂而嚴爲整治以媿之, 可也; 後者理宜明徵其法毋須苟且快啖之, 可也. 宜其浪之以十無與.(1786.9.25)

그는 이처럼 자신의 하잘것없는 사회적 처지를 응시하고 그 처지가 내면에 끼친 영향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열 가지가 없는 허랑한 자'로 일컫는다. 이 말은 그의 수많은 자기비하적 명명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좋은 운명도 없고, 잘난 외모도 없고, 재주도 없고, 문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고, 언변도 없고, 필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31]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열 가지의 '없음'으로써 이루어진 자기명명은 앞서 신분과 가계의 차원에서 스스로를 무언가가 결여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유만주의 자기규정방식과 상통하며, 결국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가까운 존재로 그려내는 것이었다 하겠다. 그런데 일기 안에서 그의 자기규정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은 여러 모로 음미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자기규정방식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불안정하게 부유하며, 직분에 긴박된 공적 인간에서 사적인 개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일기 작가의 형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유만주가 일기 안에 구축하고 있는 자아의 다양한 측면 안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의 자기인식은, 그가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기 위해 견지한 위대한 역사가로서의 이상과, 자신의 기호와 취향을 긍정하고 스스로 기쁨을 찾기 위해 시도한 심미주의자로서의 몽상이 출발하는 현실적 결핍의 지점으로서, 그와 같은 이상과 몽상을 구현한 글쓰기의 근원적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논문투고일(2012. 4. 25), 심사일(2012. 5. 15), 게재확정일(2012. 5. 25)

31) ○'無才無德, 痴頑老子', 是馮瀛王自稱也. 自古自稱之奇, 未有如馮瀛王, 或問自云'十無浪子', 云: "無星、無貌、無才、無文、無能、無財、無地、無辯、無筆、無志." 余謂浪子是老子之意與! (1784.6.23)

참고문헌

兪晩柱,『欽英』 권1-권6,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_____,『通園遺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마이크로 필름).

兪漢雋,『自著』,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權常愼,『西漁遺稿』,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마이크로 필름).

吳熙常,『老洲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李敏輔,『豊墅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韓 愈,『韓昌黎全集』, (臺北: 新文豊出版, 1977).

유치웅 편, 1963『기계문헌』(杞溪文獻), 부운장학회.

기계유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1991『기계유씨족보』(杞溪兪氏族譜) 권1-권6, 기계유씨대종회.

풍천임씨중앙종친회 편, 1994『풍천임씨세보』(豊川任氏世譜) 상-하, 풍천임씨중앙종친회.

김명호, 2001「박지원과 유한준」,『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김하라, 2011「유만주의『흠영』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경남, 2009「유한준의 도문분리론(道文分離論)과 산문(散文) 세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Self-consciousness and self-definition of one marginal gentry
: focused on Yu manju's *Heumyeong*

Kim Har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elf-consciousness and self-definition of Yu Manju兪晩柱 as a marginal gentry. In *Heumyeong*, we see a continuous self construction, a running report on identities both shifting and fixed, private and public. Yu Manju describes his life as one of eighteenth-century Choseon朝鮮's redundant gentry. In a public dimension, he considers being a servant in the office and having value of intellectual as a significance of existence of the gentry. But he categorizes himself as one of the unemployed scholars and scholars of an old-fashioned idea. This means he regards himself as a nobody in terms of a gentry. In a private dimension, Yu Manju is a firstborn son. But he had to leave the position of his own father's son and has to be the successor of his dead foster father. Consequently, he experiences some confusion of identity shuttling between two fathers constantly. His self-definition is derived from a denial of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as a gentry and a firstborn son.

Key words : Yu Manju (兪晩柱), *Heumyeong*(『欽英』), self-consciousness, self-definition, marginal gentry